

발산마을 Balsan Villedge / 03.10

광주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상대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운영하는 나 씨입니다. 장소는 숙소 주변의 발산마을입니다. 나 씨는 이 발산마을 출신입니다.

발산마을은 60 년대(자료에서는 70 년대?)에 강 건너편에 생긴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방직공장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쇼핑몰과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직공장이 사라지고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광주시는 그런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예술 공간이나 스튜디오로 만들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벽화가 많고, 알록달록한 집이나 재미있는 장식이 있는 집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집은 계속 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좀처럼 이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변화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교통도 약간 불편합니다. 저는 비탈길을 걷다 보면 여러 건물이 차례차례 나타나고, 텃밭과 좁은 골목이 있는 풍경이 변화가 많아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파른 비탈길이 많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도 많아서 미로 같은 곳입니다. 집들은 주택 회사가 만드는 것처럼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파른 지형에 맞춰 여러 가지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고쳐 짓거나 덧붙인 것처럼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주변에 보이는 고층 아파트와 대조적입니다.

현재의 발산마을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도 정비되어, 나 씨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마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을을 걷는 동안 나 씨가 예전에 살았던 집과 가족이 살았던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이곳으로 이사 와서 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래된 마을 풍경 사이에 조각 작품과 공원이 새로 만들어져 있어, 예술과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텃밭에서 고구마와 배추, 고추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에서는 지금도 직접 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나 씨의 파트너인 이 씨도 김치를 담근다고 했습니다.

건다가 들른 곳은 나 씨 친구의 떡집입니다. 떡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 씨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다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떡집이라고 들었는데, 참기름을 짜는 압착기와 김치 양념을 만드는 기계도 있었고 쌀과 참기름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참기름을 샀습니다.

